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규칙과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다양한 관련 학문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① (가): 도덕 판단의 규범적 근거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② (가): 도덕 현상을 경험적 방법으로 조사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③ (나):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④ (나):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도덕 명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기술은 인간에 결속되어 있으며 인간의 노동을 통해 실현되므로, 그것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기술 그 자체는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다.

을: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기술 속에 숨어 있는 힘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 ① 갑: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없다.
 ② 갑: 기술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③ 을: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④ 을: 기술을 수단으로만 여길 때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⑤ 갑과 을: 기술의 본질은 윤리적 성찰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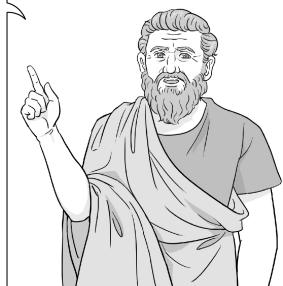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君子)답지 않은가?
 을: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고, 도(道)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어서 하지 아니함에 이른다. 하지 않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없다.

- ① 갑: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면 서로 차별 없이 사랑[兼愛]해야 한다.
 ② 갑: 이익[利]이 의로움[義]에 부합하더라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을: 스스로 그러한 도를 따름으로써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④ 을: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모습은 도에 가깝다.
 ⑤ 갑과 을: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펴 예(禮)를 완성해야 한다.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호메로스가 위대한 시인이긴 하지만, 그의 시(詩)는 참다운 실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 하므로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시인은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지향하지 않고, 화를 잘 내며 변화무쌍한 성격을 모방하여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는 시를 받아들인다면 국가에는 쾌락과 고통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국가에서는 영혼의 건강에 해로운 시는 추방하고, 신을 찬양하거나 훌륭한 인물들을 노래하는 시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한 품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① 예술 활동은 진리와 상관없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② 예술 활동은 미(美)의 이데아를 창조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③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④ 예술 활동은 현실을 모방할 뿐이므로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
 ⑤ 예술 작품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 이 마음이 곧 인(仁)의 단(端)이다. 따라서 화살 만드는 사람도 어질다. 하지만 화살 만드는 사람은 그 화살로 사람을 해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니, 직업은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을: 선왕(先王)은 혼란을 싫어해 예의(禮義)를 만들어 귀함과 친함에 차등을 두었다. 예의란 다스림의 시작이다. 농부는 농부답고, 선비는 선비다우며, 기술자는 기술자답고, 상인은 상인다운 것도 하나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보기>

- ㄱ. 갑: 항산(恒産) 없이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없다.
 ㄴ. 을: 예의에 따라 직분에 충실하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ㄷ. 을: 도(道)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
 ㄹ. 갑과 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난다. 시민 불복종의 이론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과 민주 체제의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는 것이다.

- ①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
- ②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③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다.
- ④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 ⑤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7.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불자(佛子)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지혜롭게 숙고하며 공양(供養)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몸을 존속하며 청정(淸淨)한 수행으로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나) 군자(君子)는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말아야 하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인(仁)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거친 밥을 먹고 물만 마셔도 즐거움은 또한 그 가운데 있다.

<보 기>

- ㄱ. (가) : 음식에 대한 성찰적 태도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ㄴ. (가) : 음식 섭취의 목적은 자연적 욕구 충족에 국한되어야 한다.
ㄷ. (나) : 도리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
ㄹ. (가)와 (나) : 음식을 절제 있게 먹는 것은 수행의 일환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어떤 힘에 대한 공포 없이는 단지 말에 불과한 칼 없는 신약(信約)으로, 인간 생명을 보장할 힘이 없다.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사람의 권리와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만 한다.
을 :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단을 치유할 목적으로 시민 사회가 등장한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자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 ① 갑 : 자연 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
- ② 갑 :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 계약으로 탄생한다.
- ③ 을 : 정치 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
- ④ 을 :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한다.
- ⑤ 갑과 을 :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다.

9.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담론 참여자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의하는 논증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담론 참여자들은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에 따라 수긍한 공동의 확신으로 삶의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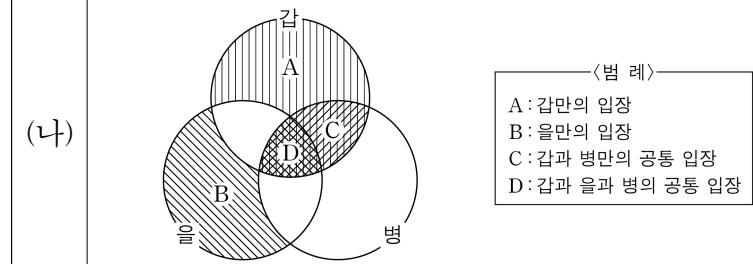
<문제 상황>

고등학교 학급 회장 A는 졸업 앨범을 제작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학급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주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의 대립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A는 급우들에게 어떤 회의 규칙을 안내할지 고민 중이다.

- 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양해야 함을 안내하세요.
- ② 개인적 이익이나 신념을 주장해서는 안 됨을 안내하세요.
- ③ 오류 가능성 있는 주장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안내하세요.
- ④ 담론 참여자 모두가 합의한 의견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세요.
- ⑤ 이미 합의한 결론에 대해 재논의해서는 안 됨을 안내하세요.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고유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을 : 대지가 단지 흙은 아니다. 대지는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 먹이 사슬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살아 있는 통로이다.
	병 :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원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기 행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



〈병 레〉
A : 갑만의 입장
B : 을만의 입장
C :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 갑과 을과 병의 공통 입장

- ㄱ. A : 식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ㄴ. B :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
ㄷ. C :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
ㄹ. D :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1.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그린 의견을 공유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터넷에 공유되는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만일 표현을 억압당한 사람의 의견이 옳은 경우,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반대로 그 사람의 의견이 그린 경우, 참과 거짓의 대비를 통해 진리를 보다 생생하게 인식할 기회가 사라진다. 혹은 그 사람의 의견이 그린 것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 그 진리는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차단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개인에게 자신의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 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진리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에 공개된 그린 의견 안에 진리가 포함되는 경우는 없다.
- ③ 인터넷에서 그린 의견을 제한해야만 진리 발견의 기회가 증가한다.
- ④ 인터넷에서 그린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옳은 의견은 모두 개진될 것이다.

12.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성적 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동반할 수 있기에 부부간에만 정당화된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적 관계를 통해 쾌락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
- (나) 성적 관계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상호 간 합의와 사랑이 전제된다면 출산과 상관없이 정당화된다.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과 결부된 성적 관계는 인간의 고유한 품격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 ① (가): 출산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② (가): 쾌락을 동반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③ (나):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 성적 관계의 유일한 목적이다.
- ④ (나): 성적 관계는 성인들 간의 자발적 합의만으로 정당화된다.
- ⑤ (가)와 (나):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

13.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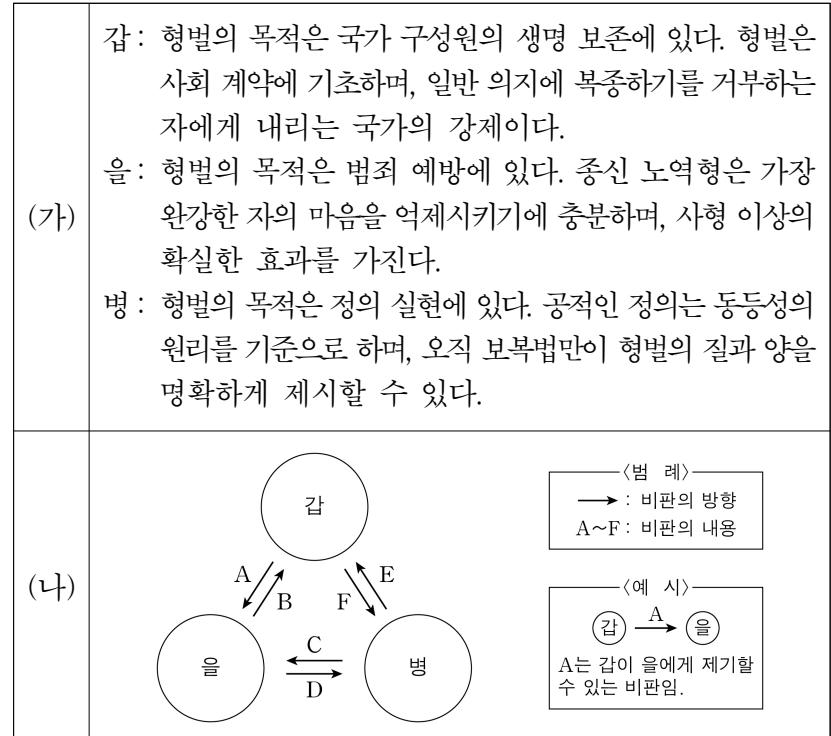
선의지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경향성에 따라 옳은 행위를 지향하는 의지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는 의지이다.

<문제 상황>

고등학생 A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돈을 받았다. 평소 웹툰 구독권을 사고 싶었던 A는 그 돈으로 교재를 구입할지, 웹툰 구독권을 살지 고민 중이다.

- ① 지식을 추구하는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세요.
- ② 부모님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행동하세요.
- ③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행동하세요.
- ④ 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신의의 덕목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⑤ 자신에게 주어진 쾌락의 질적 차이를 비교하여 행동하세요.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화 근거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② B와 D: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비인도적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③ C: 형벌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④ E: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⑤ F: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질서 정연한 사회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원조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적인 기본 제도 또는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갖출 때까지 유효하다.

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회생하지 않고서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별다른 회생 없이도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절대 빈곤의 고통을 방지해야 할 원조 의무를 가진다.

<보기>

- ㄱ. 갑: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원조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ㄴ. 갑: 원조 의무 이행에는 경제적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 ㄷ. 을: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원조 효과를 이유로 중단될 수는 없다.
- ㄹ. 갑과 을: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누가 무(無)를 머리로 삼고, 삶을 등뼈로 삼으며, 죽음을 꿩무니로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삶과 죽음, 있음[存]과 없음[亡]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와 벗을 하고 싶다.
을: 애욕[欲]과 존재[有]와 무명(無明)에서 오는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것을 알고서 보니,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수행도 이미 이루었으며, 할 일도 이미 마쳐서, 다시는 후세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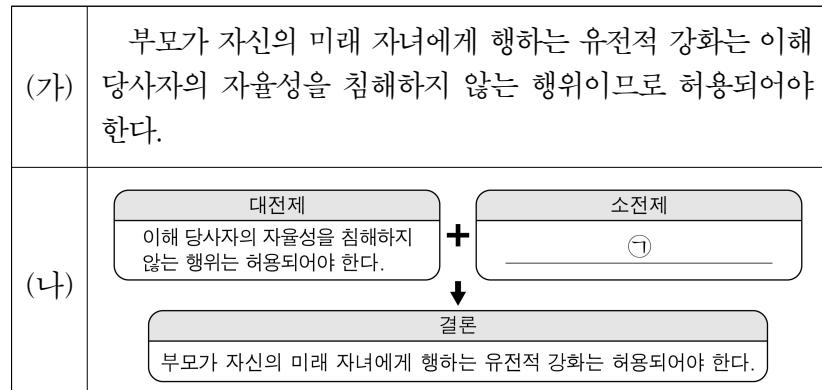
- ① 갑: 죽음은 기(氣)가 모이고 흘어지는 과정을 벗어나는 것이다.
- ② 갑: 삶과 죽음은 운명[命]이므로 기뻐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
- ③ 을: 오온(五蘊)의 반복적 결합과 해체는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 ④ 을: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 알게 된다.
- ⑤ 갑과 을: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순환하기에 고통[苦]이 아니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평화 연맹은 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고자 한다.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것이다.
을: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 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는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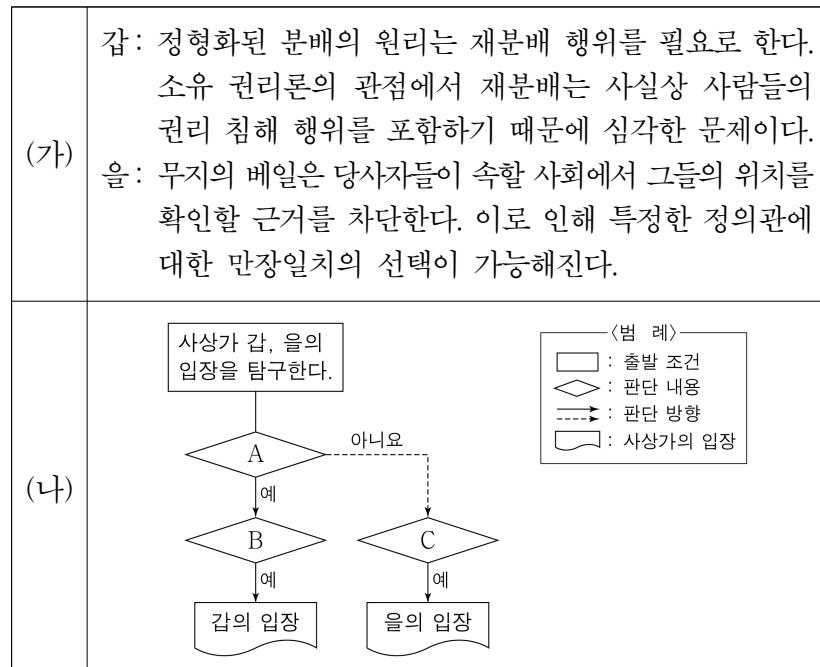
- ① 갑: 평화 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 ② 갑: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 ③ 을: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 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 ④ 을: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을 수는 없다.
- ⑤ 갑과 을: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18.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미래 자녀는 자신에게 행해진 유전적 강화에 동의할 것이다.
- ② 미래 자녀의 자율성은 유전적 강화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 ③ 유전적 강화는 미래 자녀의 자유 의지 행사를 제약하지 않는다.
- ④ 미래 자녀에게 유전적 강화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 ⑤ 유전적 강화를 받은 미래 자녀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 ㄴ. B: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 ㄷ. C: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 ㄹ. C: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의 역사에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원시적 성현(聖顯)에서부터 예수 안에 신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비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이 돌이나 나무 가운데 현현(顯現)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종교적 인간은 곧 그것이 돌 자체나 나무 자체의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대조를 이루기에 공존할 수는 없다.
- ②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여러 실재의 현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 ③ 돌이나 나무는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성(聖) 그 자체이다.
- ④ 성스러운 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공간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
- ⑤ 종교적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성현을 이해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